동물원의 필요성에 대해 찬성과 반대로 나뉘어 토론을 한다.

토론의 특징 및 주의점

입론 단계에서는 자신의 주장을 펼치고 뜻을 분명히 한다.

반론 단계에서는 상대의 입론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한다.

이 과정에서, 무조건 부정이 아닌 문제 인정 후 재반박인 경우가 존재한다.

반박은 상대의 반론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는 것 이다.

변론은 자신의 반론과 반박을 바탕으로 다시 주장을 다지고 말한다.

이때, 토론 참여자를 설득하는데 초점을 맞추나 배심원을 설득하는데 가중치를 실어야한다.

|  | 찬성 - 동물원 필요 | 반대 - 동물원 불필요 |
| --- | --- | --- |
| 입론 | 1.멸종 위기종 보호  2.교육적 효과 존재 | 1.이기적 욕구의 결과  2.동물의 고통 존재 |
| 반론 | 욕구를 채우는 수단에 한정, 아니다.  생태계 파괴에 따른 대응 기능이 존재한다.  인정한다. 그러나 대응한다.  동물권 보호를 위해 노력한다. | 멸종위기종이 아닌 것도 동물원에 존재한다. 왜 이런가?  야생과 거리가 멀어 교육적 효과는 없다. |
| 반박 | 인정한다. 그러나 종 보전 기능을 수행한다.  조사에 의해, 교육적 효과가 존재함이 밝혀졌다. | 그러한 기능만 수행할 것이지, 관람을 위해 왜 전시하는가?  규모가 큰 동물원에서만 가능하며, 제공되는 환경은 인위적이다. |
| 변론 | 동물 보호 미흡 인정, 그러나 동물원 철폐로 해결될 문제 아니다.  동물원은 동물과의 공존과 잘 살아야한다는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. | 동물원의 존재 자체가 동물 복지에 어긋난다.  멸종 위기 동물은 그것에만 충실한 기관이 있다. 동물원은 안해도 된다. |

최종 변론에서 상대측의 주장을 다시 언급할 수는 있지만,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상대의 주장을 되풀이하면서 강조한다고는 볼 수 없다. 그저 자신의 반론과 반박을 다시 강조하며 변론하는 것 이다.